

주부신행담

딸 넷 아들 하나

딸 넷에 아들 하나. 물론 아들이 막내다. 바로 이 아들만 제로 나는 한때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도 모른다. 부처님을 만나지 못 했다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택으로부터 온갖 욕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어려운 시절. 나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덕분에 죽음 대신 기쁨을 맛 보았고 미움 대신에 사랑과 자비를 키워다. 그렇게 마음을 다진 덕분인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도 낳게 되었다.

나는 옛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을 다섯이나 낳았다. 그런 나를 주위에서는 안타깝고 때로는 한심하게 여기는 듯했다. "아들 낳으시려고 꽤나 고생했겠군요." "뭘 하러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증세가 악화되자 집을 나가거나 자살하고픈 충동이 들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자지를 것 같을 때 주위 불자의 소개로 나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동안 불교에 대해 한번도 관심을 기울여 보지 않았던 나에게 부처님의 미소와 법당 가득히 풍기는 향냄새는 안정을 주었다.

이후 나는 열심히 절에 다니며 기도에 열중했다. 절에 다니면서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겼다.

어느 초하룻날이었다. 당시는 통영급지가 있을 때였는데 나는 부처님 전에 올리고 공양미와 초 한 갑을 정성스럽게 반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동네

줄줄이 딸 넷 낳자 시택과 주위에선 외아들에게 시집왔으면 아들 낳아 대 잇는게 도리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죽고싶었다



그림 · 문병성

절에 다니며 원망도 미움도 부질없음을 알게 되니...

파출소를 막 지나려는 순간이었다. 느닷없이 순경이 저에게 "아주머니" 하고 불러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젊은 여자가 새벽 일찍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이었다.

"절에 가는데 왜 그러세요?"라며 항변했지만 경찰은 확신할게 있으니 보따리를 열어보라는 것이었다. 보따리를 뜯고보니 안에 든 것이라고는 공양미와 초가 다였으니 경찰도 그래서야 볼면 소리로 "아주머니 너무 일찍 다니지 마세요"라며 보내주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초하룻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5시30분에 대문을 나서 절에 갔다.

절에 다니는 동안 나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갔다. 초조하고 불안해 죽고만 싶었던 마음에 안정을 찾으면서 '나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망도 미움도 부질없는 짓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시택식구에 대한 미움도 사라졌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도리어 내 좁은 마음을 탓하게 되었다.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넷째 딸을 낳았다. 시택식구들은 딸아이를 보러 병원에 한번도 와 주지 않았지만 나는 딸 아기가 이쁘기만 했다. 시택 어른들도 이전 지치신 눈치였다. 몸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 나는 다시 절에 나

가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참구하며 정진했다.

"부 처님 참회합니다. 이생, 전생 계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절은 차에서 내려 1km를 더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비가 오니 눈이 오니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나는 매주 절에 가서 기도를 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 만일 인연이 생겨 아이를 갖게 된다면라도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기도에도 임했다.

아들낳기에 대한 간절한 원을 펼치

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웠던지 별 말씀이 없으시던 주지 스님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간절하게 기도 정진하다 보면 부처님 가피를 입게 됩니다"며 용기를 주셨다.

스님의 말씀은 얼마 후 현실로 나타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다. 부처님이 나에게 가피를 주신 것이다. 아들은 잔병치레 한번 없이 튼튼히 자랐고, 누나들과도 잘 어울려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물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 부모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었다. 절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사찰 순회회가 있을 때에는 행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신심이 있는 것 같다. 그 아들이 이제는 장성해 한번

해병은 영리한 해병'이라는 해병대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부처님 해병대는 훈련이 고되고다고 합니다. 나오되지 않고 건강하게 군복무에 임해 뒷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래 법우들에게 존경받는 군인이 되도록 발원합니다." 아들을 위해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아들은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소속부대에 배치되었다.

나는 요즘도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러 법당을 찾는다. 고마우신 부처님! 부처님을 알게 되면서 나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었고, 내 삶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60 평생 받은 부처님의 은혜를 이제는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것을 오늘도 다짐한다.

최영자 <울산시 남구 삼산동>

부처님의 법다운 발우에 이 공양을 받으면서 원하니 모든 중생이 선 열(善悅)으로써 법을 삼고 법희(法喜)으로써 살게 하소서. [화엄경]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발다라(鉢多羅-patra)인데 재로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유원외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蓋)이다.

와발우(4합) - 가격: 60,000원 무게: 2.7Kg
와발우(2합) - 가격: 30,000원 무게: 1Kg
(2합은 재가 불자를위한 발우입니다.)

• 주문방법 : 전화(02-732-1522/737-8881) / 팩스(02-737-0697)

한정 판매

섬세한 목공예 작품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재질: 홍목(紅木, Rose Wood, 일명 지단)
특징: 조각품 (중국 현지 스님 작품)
원산지: 중국 남통시(南通市)

본 작품은 각 3점씩 한정판매 합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층목탑 - 밑지름 24cm X 높이 71cm
- 반아용선 - 가로 50cm X 세로 17cm X 높이 55cm

• 가격 : 500,000원

• 주문방법 : 전화(02-732-1522/737-8881) / 팩스(02-737-0697)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물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안옥을 원석 그대로 가공한 석품 건강속 방식으로 시원한 여름을...

안자남인, 음양이 세균 없는 청결한 약인석, 세계 최초로 발음 및 청각 효과가 있는 옥발사, 천연옥을 가공한 건강 욕망석으로 여름철 시원함(대나무 발사 대용), 카라, 기름, 김장국물을 흘려도 걸러주어 맑아주는 것으로 처리, 차양 방식으로 사용가능

• 크기 30x45cm
• 가격: ₩9,000

더우십니까? 침선명상 방식으로 선 심대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의 설계, 침선·명상·단전호흡 수련장식, 수형서 비튼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양상이 부른을 놓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정신간 안정도 취추와 처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명상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명상

• 크기 30x45cm
• 가격: ₩27,000

자비로움의 표현 불자들 모두가 함께입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안매 나염안매 (합리)
• 가격: ₩7,000

연꽃 지구촌

다가를 210 불꽃들을 염행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100%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세·사물명 인쇄해 드립니다.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전전전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말안

말안

2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디자인에 선택 가능합니다. • 가격: ₩750 (1개)

금강경 병풍 (8폭)

병풍 전면에 금강경을 8폭에 금강굴비로 인쇄(번역본) 한으며, 후면은 불상설도를 넣었다. 학살 및 거주 절하는 장소에 놓아 두면 좋은 소품이다. 크 기 세로 22cm x 가로 74cm(총8폭) • 가격: ₩ 9,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지대바 바위속에 숨은 영감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여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원종의 대승인 부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종교인 삼승교인 선, 특히 경주 남산에는 불보살이 여덟려 있는 신성스님 일신으로 있어 수없이 많은 미술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물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사로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과 후이 사된 석가모임을 삼갈게 한다.

(제작) 대림로덕선 문화공공부 등록 제1호구상 감독·황기태
상업시간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아용선 - 30분

• 가격: ₩13,000

숙면의 요인 중에는 배개선택도 중요한 요소! 한방 옥 배개로 시원한 여름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몸과 마음에 안목을 느끼지 못하고 이불에 들어가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밤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에게

많은 수련을 하더라도 최고의 휴식을 하고 싶은 수련생

- 안상투움, 불만중 등의 율행에 시달리는 분에게
-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분에게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민하신 분

• 가격: ₩30,000 (1개) / ₩56,000 (1세트)